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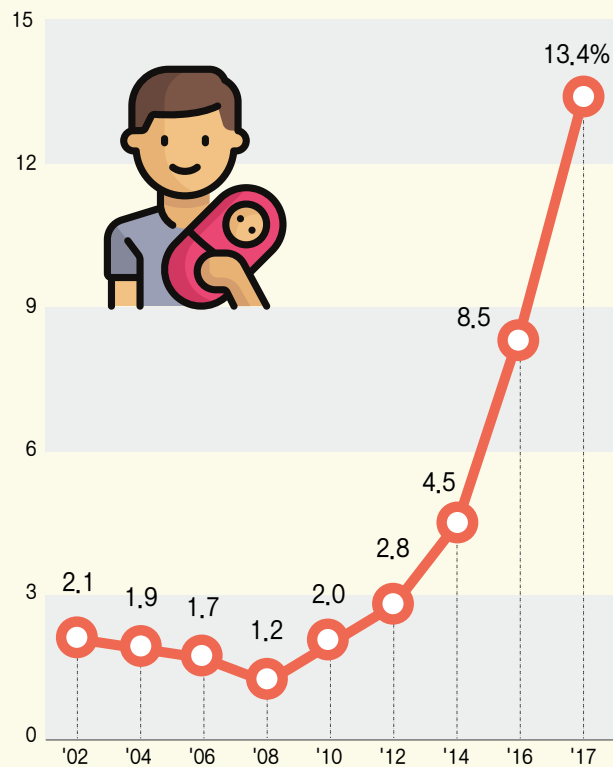
##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13.4%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2008년 1.2%에서 2017년에는 13.4%로 급상승했다.

2014년에 정부가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책을 강화한 것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이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기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투입된 공공지출액이 2013년 기준 1천72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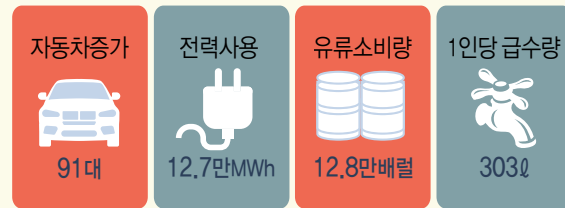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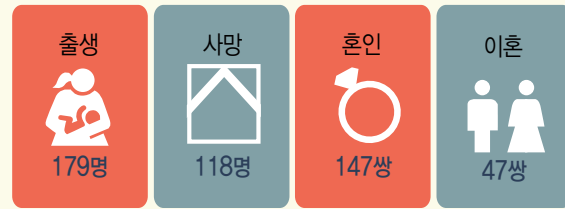
김토일 기자

### 육아휴직자 남성 비율 추이



자료 / 통계청

## 통계로 본 서울의 하루 2017년 기준



자료 / 서울시

## 2017년 서울서 하루 평균 179명 출생, 118명 사망

2017년 서울시의 하루 평균 출생 인원은 179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명 선이 무너졌다. 서울이 곧 '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신호로 감지된다. 2012년 하루 257명이던 신생아는 이듬해 230명으로 내려왔더니 2016년 206명으로 감소했다. 여기서 1년 만에 다시 27명이 줄어든 것이다. 결혼하는 숫자가 갈수록 줄고 취업도 어려워지는 현상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2년 하루 196쌍이던 혼인은 2017년 147쌍에 그쳤다. 실업률도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5%였다.

장예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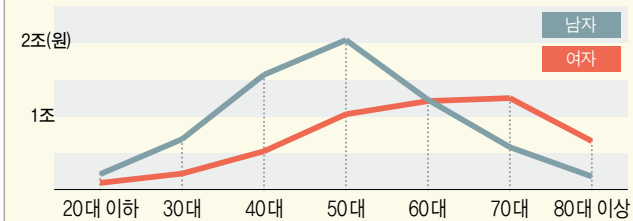
##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11조5천억원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2016년 기준으로 한 해 11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0.7% 이르는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 6조4천905억원(56.6%)으로, 여자(4조9천774억원, 43.4%)보다 컸으며, 소득분위별로는 남녀 모두 저소득층(0분위)이 가장 크고 점점 감소하다가 중상층을 지나 고소득층(20분위)으로 올라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U자형' 패턴을 보였다. 비만에서 비롯한 1인당 의료비 손실액은 전남이 33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32만5천원), 부산(31만6천원), 강원(30만7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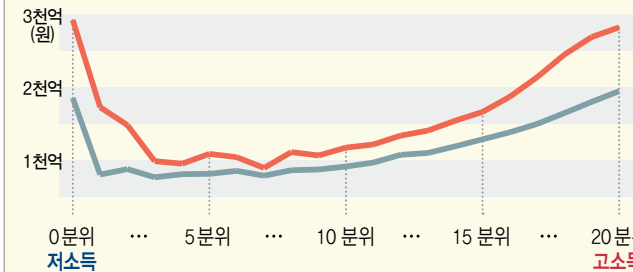
장예진 기자

###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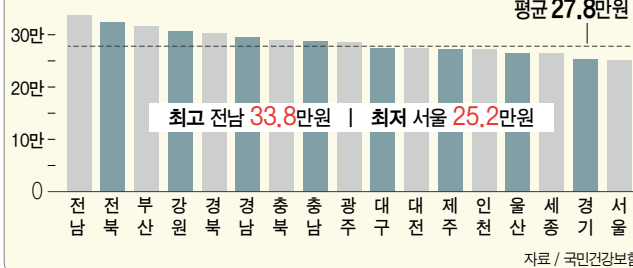
#### 사회경제적 비용



#### 소득분위별 손실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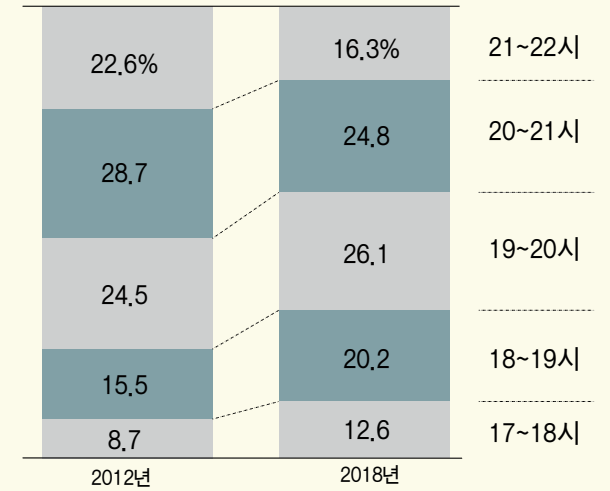


#### 지역별 1인당 의료비 (비만 관련)



자료 / 국민건강보험

## 저녁 외식 시간대별 비중 변화 각 3분기 신한카드 외식 결제 1억 8천만 건 분석



### 외식 증가율 2012년 대비



자료 / 신한카드

## 외식 최다 결제 시간대 오후 8~9시→오후 7~8시

신한카드 분석 결과, 2012년 3분기에는 외식업 카드 결제가 가장 많은 시간이 오후 8~9시(28.7%)였지만, 2018년 3분기에는 오후 7~8시(26.1%)로 1시간 앞당겨졌다.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회식 자리가 2~3차까지 이어지며 늦게 끝나는 문화가 줄어든 때문으로 보인다. 또 2012년과 지난해 외식 이용 건수를 비교하면 아침 외식 건수가 67.5%나 증가해 점심(50.4%)이나 저녁(33.2%)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아침 외식이 87.7%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40대(64.9%), 20대(65.8%), 30대(58.0%) 순이었다.

김토일 기자